

진도 '아열대 과일'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

수입산 열대과일 대체 진도산 애플망고·바나나 재배 본격 시작

진도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애플망고와 바나나 재배를 본격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애플망고 재배 농가 수 4호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지금 재배 농가 수는 애플망고 7호, 바나나 2호, 면적은 2.1㏊에 달한다.

8월부터 수확에 들어가는 진도산 애플망고는 나무에서 충분히 익은 후 수확하기 때문에 수입산보다 향이 진하고 당도가 높다. 노란색을 띠는 일반 망고와는 달리 사과처럼 붉은 빛깔을 띠는 애플망고는 열대과일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맛과 향, 식감이 뛰어나다.



시기별 재배 방법이 까다로워 진입 장벽이 높은 작목이지만 아열대 작목 중에서는 고소득 작목에 속한다

는 전남농업기술원의 분석 결과도 있다.

작년 12월 식재하고 올해 2월부터

수확을 시작한 진도 바나나 역시 2달 만에 10t이 넘는 생산량을 완판하는 등의 높은 판매 성과를 보여 시범사업의 과급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에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전남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와 협력해 농가별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품 아열대 과일 주산지화를 위해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연평균 기온이 14.7℃로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진도는 난방비 절감 등 아열대 작목 육성의 최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열대 작물을 재배와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무안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무안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기존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의무대상기준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5%(신축시설), 2%(기축시설)로 강화됐으며, 3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군은 지난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계도기간 이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단속에 1달 동안 적발된 위반행위 건수는 총 40건에 달했으며, 그 중 80%인 32건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해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이상,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등 충전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되니 군민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나연 환경과장은 “군민들에게 변경사항과 단속 시행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안=박태언 기자

해남 신소득 작목 등 농업연구 '두각'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융복합 연구개발 박차

해남군은 신소득 및 기후변화 대응 작물, 지역 특산물 가공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분야 연구를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을 통해 인디언시금치, 오크라 등 37작목에 대한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중 파인애플, 소과종 수박 등 7작목은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 오크라, 참쑥 등 13작목은 가공기술 개발 및 유통 판로 개척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목 실증시험은 2018년 바나나 실증시험

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역에 맞는 적응성 품종을 선발하였고 관수·온도관리 및 후숙기술 정립과 연작장해 대책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해남군은 국내산 아열대작목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파인애플 내재재형 하우스 등 생간기반 시설 구축과 파인애플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재배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실증재배를 통해 지역 적응성 검증 적정재배 기술을 정립하면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연구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니 단호박에서 기능성 성분을 최초로 규명, 학술지 게재 3건, 특허출원 1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능성원료 등록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구성하여 자체적용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최대 배추 주산지인 해남 김치의 표준화와 김치 과학화를 위해 세계 김치연구소와 함께 맛이 뛰어나고 차별화된 명품레시피를 연구 개발하여 지역 김치생 산업체인 화원농협, 김치정보화마을 등 8개 업체에 김치 표준화 기술 이전식을 진행하였고, 희망 관내업체들에게 추가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신안 청정해역 바다숲 조성 속도

‘기찬들 영암몰’ 어플리케이션·앱 출시

다운로드시 적립금 1000원 지급… 이벤트도 진행

영암군은 온라인 쇼핑몰 ‘기찬들 영암몰’의 어플리케이션과 앱을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에서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및 iOS 앱스토어에서 기찬들 영암몰 어플리케이션과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다운받은 고객 전부에게 적립금 1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플리케이션과 앱에서는 주문은 물론 결제도 가능하며,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간편히 받아볼 수 있다.

기찬들 영암몰은 지난해 4월 개관 후 이벤트 행사를 꾸준히 진행했으며,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강터’와 연계해 영암의 농축수산물 흥보미케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찬들 영암몰에는 192개 제품을 판매 중으로 농업인 및 소상공



인과 전국의 소비자들을 직접 연결시키는 착한 쇼핑몰로 운영 중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찬들 영암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기찬들 영암몰이 영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해 농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김형우 기자

강진 가을 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군민 제안 공모전

오는 17일까지 접수… 상금 최대 30만 원

당 최대 2개 제안까지 가능하다. 시상은 1인 1개로 제한된다.

심사는 주제성·창의성·실현 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5월 중 심사를 거쳐 10개 팀을 선정한다. 최우수 1팀 30만 원, 우수 1팀 20만 원, 장려 2팀 각 10만 원, 아이디어 상 6팀 각 5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 제안계획서, 개인 정보 동의서 등 제출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진=한홍수 기자

신안군은 지난 5월초 갯녹을 확산에 따른 사라진 해조류 복원을 위해 비금면 노대도와 안좌면 상사지도 암반 해역에 바다정원화사업 일환으로 해조류(곰피)를 이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식한 곰피는 다년생 갈조류과로 여름철 고수온기에도 엽상체를 유지하며 연중 생장하여 바다숲 조성의 주요 해조자원으로 곰피 서식에 적합한 수심 2~5m의 암반지역에 곰피 엽장(5cm이상)이 예인 친환경 줄 16,554m를 황토 벽돌 2,672개에 결속, 투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금번 해조류 이식 해역은 2022년

부터 5년간 50억원을 투입 인공어초 투하 등을 추진하는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 인접 해역으로 향후 낚시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작년도에 이식한 해조류(곰피)의 포자 발아를 통한 주변 암반착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바다숲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군은 지금까지 갯녹음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흙산도 해역에 다시마 30,000m, 비금도, 암태도, 안좌도 해역에 곰피 58,000m를 이식을 완료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정정완도로
전복
먹으러 갈래?**

완도군 전복 흥보대사 영탁